

## 華西學派 門人の 蘇東坡 인식과 비판\*

김 근 태\*\*

<目 次>

|                            |                           |
|----------------------------|---------------------------|
| I. 서론                      | 1. 소동파에 대한 인식             |
| II.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소동파 수용 양상 | 2. 역사서 편찬에 나타난 소동파에 대한 평가 |
| III. 화서학과 문인의 소동파에 대한 시각   | IV. 결론                    |

<국문 초록>

본고는 19세기 조선의 지식인 사이에 붙었던 蘇東坡에 대한 열풍과 화서학과 문인들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19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있어 소동파는 뛰어난 문장가나 시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들은 소동파의 시문을 뛰어넘어 그의 모든 것을 배우고 따르고자 하였던 것이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활약한 京華世族들에게 있어 소동파는 그들이 본받아야 할 이상적인 삶의 典範이 된 것이다. 이전의 지식인들이 朱子를 삶의 전범으로 삼았던 것에서 그 대상이 소동파로 바뀐 것이다.

그런데 화서학과 문인들은 기존 성리학자들이 견지했던 의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다. 栗谷 - 尤庵 - 華西로 이어지는 그들의 學統이 소동파에 대한 인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소동파가 정이와 정치적 갈등을 빚었던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그들에게 있어 소동파는 天理를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혼란에 빠트린 문제아일 뿐이었다. 소동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正

\* 본 논문은 2016년 11월 25일 (사)의암학회 주최로 강원대학교 서암관에서 개최한 제17회 의암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 강원대학교 강사 / [neoktkim@naver.com](mailto:neoktkim@naver.com)

統을 바로잡아 華夷의 구별을 엄격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편찬된 『송원화동사합편강목』이라는 역사서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기존 역사서에서 서술된 소동파에 대한 기록을 수용하되 소동파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쪽으로 수정하기도 하였고, 소동파가 매우 큰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한 소동파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사로 독립하지 않고 주석으로 처리해 버린 것이다.

화서학과 문인들이 이와 같이 소동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배타적인 자세를 견지한 이유는 주자 등 송나라 도학자들이나 조선 중기 성리학자들의 생각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소동파가 어느 특정한 사상에 구애받지 않아 儒佛道를 아우르는 폭넓은 사상을 지니고 있는데다가 타고난 문학적 능력을 토대로 자유자재로 문장을 구사하였던 바, 당대는 물론이고 사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동파의 문장에 매료되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성리학자들이 주장하는 道學은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그들은 그런 상황이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소동파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맞선 것이다.

【주제어】 소동파, 정이, 주자, 화서학과, 화이, 송원화동사합편강목

## I. 서론

화서학과는 이항로를 스승으로 삼아 교유하고 공부한 일군의 학자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이들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衛正斥邪를 기치아래 서구문물의 개방을 반대하고 옛 문물의 수호를 주장하였다. 그동안 화서학파의 사상과 그들의 위정척사 활동에 대한 연구는 사학계와 철학계에서 큰 관심 속에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sup>1)</sup> 또한 소략하나마 그들의 문학세계에 대한 연구 성과도 속속 학계에 보고되어 왔다.

1) 지면관계상 화서학과 문인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는 일일이 제시하지 않는다.

본 논문은 그들의 문학세계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화서학과 문인들이 주로 활동하던 19세기 조선의 문단에 큰 영향을 끼친 蘇東坡라는 문인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 논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전제조건이 성립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화서학과 문인들을 문학가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분량과 수준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화서학과 문인들의 문집에는 실용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詩와 賦 등 운문과 문학성을 담보한 산문이 공존하고 있고, 각 개인의 문학세계에 대해 연구한 성과물도 속속 학계에 보고되고 있기에<sup>2)</sup> 그들을 문학가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화서학과 문인들이 주로 활동하였던 시기가 19세기 후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19세기 후반의 조선 문단에도 소동파의 영향력이 존재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19세기 중후반 조선사회는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여 서양과 일본에게 차례로 문호를 개방하면서, 새로운 사상과 문물이 유입되는 시대적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위정자들의 안일한 대처와 무능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혼란한 시대상황 속에서 문학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은 어찌 보면 현실감이 떨어지는 일부만의 행위라고 간주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구한말 四大家로 통칭되는 뛰어난 문인들이 출현하기도 하였거니와, 당시 문단의 세

2) 화서학과 문인들 전체를 아우르는 문학론이나 문학세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물은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화서학과 문인들 각 개인의 문학론에 대한 연구물만 보이는데, 대표적인 성과물은 아래와 같다.

홍우흠, 「華西 李恒老의 山水詩 試探」, 『語文研究』 32집, 2004; 황하준, 「華西 李恒老 漢詩 研究」, 『한문교육연구』 32집, 2009; 정경훈, 「重庵 金平默의 文學觀 形成과 文學認識」, 『東方漢文學』 34집, 2008; 이동재, 「省齋 柳重教의 詩文學 一考」, 『漢字漢文教育』 20집, 2008; 송기섭, 「穀菴 柳麟錫의 詩文學 연구」, 선문대 박사학위논문, 2015; 박준호, 「穀菴 柳麟錫의 漢詩에 대한 研究」, 『大東漢文學』 21집, 2004; 김근태, 「恒窩 柳重岳의 생애와 시세계 - 화서학과 문인들의 문학론을 중심으로 -」, 『한국인물사연구』 18집, 2012.

태를 비판하고 올바른 문학의 관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전 시대에 비해 위축되었다고는 하지만 문인들의 문학 활동은 여전하였고, 그들의 기록에서 소동파에 대한 언급도 자주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화서학과 문인들이 활동하던 19세기에 조선의 문인들이 소동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화서학과 문인들의 견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II.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소동파 수용 양상

19세기 조선사회는 임병양란을 겪던 시기를 제외하면 조선 전시기를 거쳐 가장 혼란한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문호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서구 열강과 일본의 압박, 무능한 국왕과 세도가문의 국정 농단, 국가권력에 맞서는 백성들의 연이은 항거 등으로 조선사회는 서서히 그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혼란한 사회상과는 별개로 문학과 문화 방면에 있어서는 이전 시대와 다른 독특한 양상을 보이며 발전되어 갔다. 이 시기 조선 지식인 집단의 문학 및 문예활동에 있어서 가장 특이한 점을 꼽자면 중국 송나라의 대문호인 소동파에 대한 붐이 거세게 일어났다는 점을 먼저 거론할 수 있다.

고려 말엽에 유입된 소동파의 시문은 과거합격자 발표가 나면 ‘三十三人東坡出’이라고 하는 말이 나돌았을 정도로 크게 유행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유행은 조선 전기까지 이어졌는데, 조선 중기에 이르러 주자학 일변도의 학풍과 명나라에서 유입된 의고주의 문학론으로 주춤하였다가 19세기에 이르러 그 열풍이 다시 부흥한 것이다. 그런데 19세기에 다시 불기 시작한 소동파에 대한 열풍은 이전 시기보다 그 강도가 훨씬 강하였고, 그 범위도 대폭 확대되었다. 소동파의 시문을 作詩의 전범으로 삼아 배우고자 하던 단계를 넘어서, 詩書畫 三絶로 불린 소

동파의 예술적 취향까지 따라 하는 쪽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 시기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 소동파에 대한 애호열풍이 거세게 불었던 배경은 청나라 문예사조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음은 이미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졌다. 당시 청나라 학계의 원로로 금석학의 대가였던 翁方綱(1733~1818)은 소동파의 진적과 관련 자료를 광적으로 수집하고 자신의 서재를 寶蘇齋, 蘇齋라고 명명하고 소동파의 초상을 벽에 걸어들 정도로 소동파에 매료된 인물이다. 이러한 옹방강의 취향은 당대 청나라 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중국으로 사신을 갔던 朴齊家 및 紫霞와 秋史 등은 옹방강을 만나 그에게 매료되었고, 그의 문예적 취향을 그대로 조선으로 가지고 와 조선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한 옹방강은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서 찾아온 여러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이별할 때는 紅豆를 선물로 주었는데, 이것이 당시 매우 유명한 관례가 되었다.<sup>3)</sup> 옹방강에게 홍두를 받는 것이 옹방강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었기에 우리나라 학자들은 특히 영광스럽게 여겨 이런 사실을 자랑스럽게 글로 남기기도 하였다.

본 절에서는 19세기 조선의 문인들이 소동파의 시문을 배우고 본받고자 하였던 경향과 소동파를 숭상하여 그를 기념하기 위한 여러 문화적 행위에 대해 통시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소동파의 시는 情感을 위주로 한 唐詩와는 달리 시의 풍격이 豪放하며 雅俗을 가리지 않는 詩語가 富瞻하여 상당히 독창적인 면모가 있었고, 유배와 좌천 등으로 점철된 험난한 굴곡의 인생을 보내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현실긍정적인 작품을 많이 남겼다는 점 때문에 조선 후기에 때를 만나지 못한 지식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sup>4)</sup>

‘由蘇入杜’의 기치를 내건 紫霞 申緯(1769~1845)나 秋史 金正喜

3) 柳信, 「紅豆贊」, 『文通』, “嘉慶年間 學士翁方綱以書畫尚古開門戶 其學專尊蘇長公 務多蓄古器 自號紅豆子 中外諸國好奇者 爭投交 其交也 必遺紅豆以表憧憧 遂成一時俗”

4) 이에 대해서는 허권수, 「소동파 시문의 한국적 수용」, 『중국어문학』 14집, 1988 참조.

(1786~1856)는 소동파에 대한 애호열이 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는 물론 후대에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다. 자하와 추사가 소동파에 대해 지녔던 호감과 실제 생활에서 그를 숭배한 경향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연구자들에 의해 많은 성과가 보고되었기에 본고에서는 생략하고 비교적 덜 조명된 인물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19세기 초반에 활약한 柳僖(1773~1837)는 경기도 광주와 용인을 근거지로 한 소론계 가문에서 태어나 관직으로의 진출이 막히자 학문연구와 시문창작으로 한평생을 보낸 학자이자 문인이다. 그는 한시에 있어서 『詩經』→杜甫→黃庭堅·陳師道→朱熹'로 이어지는 詩統을 정맥으로 여겼지만 소동파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였다. 인척관계에 있던 李祖默<sup>5)</sup>을 통해 옹방강의 제자인 翟椅 형제와 서신을 주고받기도 하였거니와, 20대의 젊은 나이에 이미 소동파의 문집을 세 번 읽고 느낀 감회를 「參讀東坡集命執筆書一篇」이라는 장편 고시로 썼는데, 소동파가 자잘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 호방한 성격을 지녔음을 칭송하고 자신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다.<sup>6)</sup>

그런데 소동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여 ‘學蘇’를 기치로 내세운 집단은 당시 정계에서 소외된 소론계 문인과 일부 남인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울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집권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경화세족들에게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대표적으로 안동김씨 세도정치의 서막을 연 金祖淳(1765~1832)은 자신의 시를 소동파와 비슷하다고 평가한 벗에게 기쁨을 표하며 ‘소동파를 경모한다(子與余慕蘇)’고<sup>7)</sup>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소동파의 제자인 황정견의 시를 읽고 쓴 시에서 아래와 같이 읊었다.

5) 이조목은 1833년에 중국에서 옹방강을 만나 소동파의 「天際烏雲帖」을 직접 선물로 받고 자신의 문집 이름을 『天際烏雲集』이라 명명하기도 하였다.

6) 줄고, 「西坡 柳僖의 詩文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참조.

7) 金祖淳, 「竹石和余扇詩 謂類東坡 復嗚以呈」, 『楓臯集』 1권.

我姓惟金公姓黃 나의 성은 김이고 공은 황인데,  
 問黃是底金之光 묻노니 황은 금빛의 바탕이 아닌가.  
 黃與金無可離義 황과 금은 뗄 수 없는 뜻이니,  
 雖謂姓同固何傷 비록 성이 같다고 말해도 뭐가 문제가 되랴.  
 公識東坡百世士 공은 동파가 백대의 선비임을 알고 있고,  
 師友不直尊文章 사우들도 단지 문장만 존경한 것은 아니라네.

...8)

위의 시에서 김조순은 자신의 성인 金과 황정건의 성인 黃은 금빛이라고 하는 동일점이 있으니 성이 같은 것이 아니겠냐고 말하고, 소동파가 백대의 선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소동파의 문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삶까지도 존경한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말하였다.

이러한 소동파에 대한 애호열은 19세기 초중반에 잠깐 반짝한 것이 아니라 19세기 말까지 이어진다.

먼저 자하의 문인으로 由蘇入杜를 가장 잘 구현한 인물로 평가받는 朴永輔(1808~1872)는 ‘由蘇入杜’를 자신의 印章으로 삼았고, 자신의 초기 문집이름을 소동파의 「綠筠堂」이라는 시에서 따 『綠筠集』이라 명명하기도 하였다. 소동파의 시에 차운한 다수의 작품을 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하와 함께 소동파의 글씨와 초상을 수집하고 소동파를 제사지내는 행사를 매년 동료들과 함께 거행하기도 하였다.<sup>9)</sup>

구한말 대표적인 문인인 黃玹(1855~1910)은 시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지녀 커다란 족적을 남겼는데, 특히 宋詩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었다. 그는 소동파의 문집을 읽고 느낀 점을 아래와 같이 장편의 시로 남겼다.

東坡學士神仙姿 동파 학사는 신선 같은 자질을 지닌 데다  
 氣橫素秋萬人往 기개는 가을 하늘에 짝 차서 만인을 대적할만하다네.

8) 金祖淳, 『讀山谷詩集』의 앞부분, 『楓臯集』 1권.

9) 박영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영진, 「錦舫 朴永輔와 蘇東坡」, 『한국한문학회연구』 45집, 2010 참조.

筆下汪洋經國言 깊고 넓은 문장은 나라 다스리는 말들인데  
兒畜賈董奴非鞅 가동을 애들로 보고 비양을 노예시켰네.

...

寄笑後來諸妄人 우스워라 후세의 여러 망령된 사람들이  
抽肝擢腎期相倣 생각을 쥐어짜서 그와 같길 기대하는 것이.  
先生却在文字外 선생의 장함은 도리어 문자 밖에 있거니  
高風峻節尤何仰 우뚝한 풍절은 더욱 어찌 우리를 수 있으랴.<sup>10)</sup>

위의 시에서 황현은 소동파가 신선같은 고고한 자질에 탁월한 기상을 지니고 있고, 그의 글들은 세상을 경영할 만한 뛰어난 식견을 지니고 있어 賈誼와 董仲舒, 韓非子와 商鞅 등 역대로 유명한 정치가들을 뛰어넘는다고 평가하였다. 생략된 중간부분에서는 호방한 필치로 풀어내면서도 雅俗을 가리지 않는 소동파 시문의 특징을 칭송하였고, 후반부에서는 능력도 없으면서 소동파의 걸모양만 따르는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소동파의 뛰어난 점은 문장 이외에 그의 고상한 풍채와 뛰어난 절개에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황현이 활약한 20세기 초반까지 조선사회에서는 소동파의 시어를 차용하고 소동파가 행했던 일들을 따라하는 풍조가 만연하였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선 말기 서구열강과의 대립 및 협상에 있어 국방과 외교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申櫳(1810~1888)은 무인의 신분이면서도 다산과 추사의 문하에 출입하였고, 朴珪壽를 비롯한 당대 문학 예술계의 저명한 인사와 교류한 특이한 행적을 보인 바,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스승이었던 추사의 영향을 깊이 받아 유배지의 처소에 소동파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東坡祭를 지내기도 하였고, 자신의 호를 西坡라고 고칠 정도로 소동파에 매료되었으며, 소동파의 「東坡八首」를 차운하여 「西坡八首」를 짓기도 하는 등 많은 화운시를 남겼다.<sup>11)</sup>

10) 黃玹, 「題東坡集」, 『梅泉集』 1권.

11) 신현의 문학과 관련된 내용은 이승재, 「威堂 申櫳 한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0 참조.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19세기 지식인들에게 있어 소동파는 단순히 뛰어난 문인이자 시인이라는 위상을 넘어 당시 지식인 계층 사이에는 문화예술 행위로까지 그 영향력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열풍은 문인들에게서 그치지 않고 왕실에까지 전파되어, 憲宗은 자신의 거처인 낙선재에 추사의 글씨로 소동파를 보물처럼 여기는 집이란 뜻의 ‘寶蘇堂’이란 편액을 내걸고 수백 개의 印章을 새겨 이를 찍고 釋文을 붙여 『寶蘇堂印譜』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이 인보는 고종대에 이르러서도 다시 보완하여 간행되기도 하였다.<sup>12)</sup>

이러한 예술적 취향은 자하와 추사의 영향을 많이 받은 興宣大院君(1820~1898), 영의정이었던 李裕元(1814~1888), 고종의 親政 이후 권력을 장악했던 여흥민씨 세도 가문의 대표적 인물인 閔圭鎬(1836~1878), 閔泳翊(1860~1914) 등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선조의 마지막까지도 계속 유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정리하자면 19세기 조선 지식인들은 이전 시기 문인들이 學詩의 典範으로 삼아 감상하고 배우고자 하였던 ‘學蘇’의 단계를 넘어서, 사상과 예술적 취향 등 그의 모든 것을 본받고 따르고자 한 ‘慕蘇’ 또는 ‘崇蘇’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이현일은 “조선 중기 이래 향촌 출신의 士林들이 동일시하는 대상이 朱子였다면, 이 시기 京華世族이 동일시하는 대상은 東坡였다고 할 수 있다.”<sup>14)</sup>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 III. 화서학과 문인의 소동파에 대한 시각

윗 장에서 살펴본 소동파에 대한 붐은 사실 서울 및 서울과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지식인 계층에게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

12) 성인근, 『寶蘇堂印存』의 내용과 이본의 제작 시기, 『장서각』 14집, 2005.

13) 이현일, 「조선후기 京華世族의 東坡 수용 양상」, 『중국문학』 62집, 2010, p.204.

14) 이현일, 위의 논문, p.206.

상이다. 한시 분야만 논한다면 관서와 관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영남과 호서지방 대부분의 문인들은 이 시기까지도 성리학자들의 시와 당나라 시인들의 시가 주된 學詩의 대상이었다. 서울과 근기 지방의 문인들에 비해 기타 지역의 문인들은 학맥의 전통이 강하였고,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여 새로운 트렌드에 뒤쳐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화서학과 문인들은 전국 각지에 널리 퍼져 활발한 강학활동을 하였지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물들이 주로 거주했던 근거지는 양평, 포천, 가평, 춘천 등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근교였다. 따라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하였기에 그들도 당시 지식인 계층의 경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그들의 문학에 대한 인식은 유학의 도를 담는 도구로 간주하는 이전 성리학자들의 견해를 그대로 답습한 면이 다분하다.<sup>15)</sup> 이들은 중화와 오랑캐[華夷]라는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기존의 전통적인 지배질서를 불변의 진리로 여기는 衛正斥邪를 기치로 내걸었으며, 정치, 경제, 사회, 사상 전반에 걸쳐 성리학적 질서에 기초한 지배체제를 이상적인 국가로 간주하였기에 그들의 문학에 대한 관점도 다분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 1. 소동파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화서학과 문인들이 소동파에 대해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은 소동파에 대해

15) 김평목의 어록에서 載道論의 문학과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柳重岳, 「重庵先生語錄」, 『恒窩集』 25권, “詩書皆以言教 詩以興感 書以觀法 禮樂皆以身習禮以立教 樂以導和” “古今異宜 三代之聲律 雖不可遽復 而其詩歌則尙可以效法矣 工拙異 能詩歌之律 則雖不可以盡美 而其志則尙可以自治矣 志者樂之本 無古今人我而一者也” “詩歌與言語不同 言語必與人酬酌 未有獨坐而言者 詩歌則自宣其志而已 不專爲告人而發 然其所以感人者 又有非言語之所及者 天地間 無物不鳴 詩歌即人之鳴也 鳴有大小 鳴之大者 其聲滿天地 又有不待聲而能使天下萬世人物鼓舞聳動而不知爲之者” “樂本於詩 若要正樂 當先正其詩”

매우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당시 다른 지식인들에게서 확인되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전혀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

화서학과 문인들이 소동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게 된 것은 그들의 스승인 華西 李恒老(1792~1868)에게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소동파가 거문고를 소재로 쓴 「琴詩」에 대해 화서가 성리학자의 관점에서 비판한 글이 있거니와,<sup>16)</sup> 화서학과 문인들의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인 『宋元華東史合編綱目』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실려 있다.

화서 이선생이 말하였다. 程子是 순수하고 성실하며 독실한 성품과 정대하고 빛나는 학문을 가지고 천하에 그 도를 환하게 드러냈으니, 이것은 엄청난 정성이며 엄청난 공적을 쌓은 것이다. 蘇黃의 무리는 천박하고 화려하기만 한 글솜씨를 밟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곤란함에 빠트려 인심을 무너뜨리고 재앙과 혼란함을 선동하였다. 매번 한밤중에 그것을 생각하면 곧바로 원통하여 눈물이 나려고 한다. 후인들이 그들을 좋아하고 사모함은 또한 유독 무슨 마음인가.<sup>17)</sup>

위의 인용문은 宋나라 哲宗 2년(1087) 8월에 당시 崇政殿 說書였던 程頤가 과직을 당한 기사를 기록하면서 그 주석에 수록된 내용이다. 程頤가 純善한 성품과 뛰어난 학식으로 성리학의 도를 천하에 펼치고자 하였는데, 소동파와 그의 제자인 황정견이 교묘한 글로 그를 모함하여 과직당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다. 그 결과 인심은 무너지고 세상이 혼란에 빠지는 재앙을 초래하게 하였다고 하여 소동파를 비판하면서, 자신은 울분을 터트리는데 비해 후인들이 그 두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며 당시 지식인들이 소동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현실을 개탄하였다.

16) 李恒老, 「辨東坡琴說」, 『華西集』 24권.

17) 『송원화동사합편강목』 8권, 宋 哲宗 2年, ‘八月罷崇政殿說書程頤’ 기사의 주석, “華西李先生曰 程子以純慤篤實之性 正大光明之學 倡明其道於天下 是何等血誠 是何等積功 蘇黃輩挾浮薄藻華 媚嫉而凌轢之 壞敗人心 煽動禍亂 每中夜思之 直欲痛哭 後人之悅慕於彼者 亦獨何心哉”

그런데 소동파에 대한 화서의 부정적인 인식은 그의 부친의 가르침이 큰 영향을 끼쳤다. 화서의 연보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선생(화서)은 5~6세에 몸가짐이 단정하고 중후하여 엄연히 성인과 같았다. 제사지내는 일엔 반드시 참여하니 부친인 참판공이 그를 크게 될 인물로 여겨, 일찍이 주자의 <백록동서원 학규>를 직접 써서 자리 곁에 걸어두고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다. 또 동파의 글에서 “원래부터 程頤의 간사함을 싫어하였습니다.”라는 구절을 보고는 그를 매우 미워하여, 선생에게 소씨의 글을 보지 말라고 훈계하였다. 그의 가르침과 인도함의 올바름이 대개 이와 같았다.<sup>18)</sup>

위의 인용문은 화서가 어린 나이부터 남다른 자질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과 그의 부친이 올바른 방향으로 그를 교육시켰음을 기록한 것이다. 화서의 부친인 李晦章(1752~1816)은 당시 주자학의 대가로 主氣論을 주창한 任聖周의 제자인 任宗周에게 수학한 노론계 재야 학자였다. 그는 아들인 화서의 뛰어난 자질을 알아보고 가문을 다시 부흥시킬 재목으로 키우기 위해 노론계 관료 및 재야 유림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경전을 토론하고 詩會를 개최하는 등 지식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sup>19)</sup>

화서의 부친이 지니고 있던 소동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 위로 소급해 올라가면 栗谷에게 그 맥이 닿아있다.

宋나라의 여러 현인들이라고 운운한 것은 단지 반드시 군자와 소인으로 서로 공격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요, 서로 부합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蜀黨과 같은 것은 진실로 그른 것입니다. 가령 程子が 정사를 한다면 온 촉당을 다 물리치겠습니까. 아니면 그 복종시킬 수 없는 사람만 다스리겠습니까. 제 생각은 蘇東坡야 쓸 수 없겠지만 그 나머지는 또한 군자가 많으니, 어찌 다 버리겠습니까.<sup>20)</sup>

18) 「年譜」, 『華西先生文集』 부록 9권, “先生五六歲 儀表端重 儼若成人 祀事必參 皇考參判公甚器之 嘗手寫朱子白鹿洞書院學規 揭座右令觀省 又於東坡文 見有素疾程某之奸之語 深惡之 戒先生勿讀蕪氏書 其教導之正 蓋如此”

19) 오영섭, 『화서학파의 사상과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1999, pp.25-32.

위 편지는 沈義謙과 金孝元이 서로 대립하여 갈등을 야기하였을 때, 율곡이 심의점을 두둔하면서 쓴 편지이다. 두 사람의 갈등은 훗날 동서분당의 계기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 글에서 율곡은 북송대 정이와 소동파의 정치적 갈등을 예로 들면서 소동파를 소인으로 지목하여 비판하였다. 위 글에서 보이는 蜀黨은 소동파를 영수로 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川黨이라고 불리는데, 宋나라 哲宗때 程頤를 영수로 하는 洛黨 및 劉摯를 영수로 하는 朔黨과 함께 元祐 三黨이라고 불렸다. 이들 세 정파는 王安石的 新法에 대해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는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성취한 후에는 국정 전반에 걸쳐 서로 대립하며 치열한 정쟁을 벌였다. 도학을 중시하는 洛黨과 문예와 풍류를 중시하는 蜀黨은 가치관과 지향점이 전혀 달랐던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화서와 관련된 글에서 소동파가 정이를 시기하고 모함하였다는 표현은, 소동파가 1091년 철종에게 疏章을 올려 “신은 원래 정이의 간악함을 미워하여 한번도 말이나 얼굴빛을 거짓으로라도 좋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이의 무리들은 흘겨보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臣素嫉程頤之奸 未嘗假以辭色 故頤之黨人 無不側目)”라고 하고 정이를 탄핵하도록 孔文仲을 사주하여 결국 정이는 講官으로 기용되었다가 좌천된 사건을 가리킨다.<sup>21)</sup>

위 글에서 율곡도 蜀黨의 모든 당원을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배척할 대상을 영수였던 소동파로 한정하였다. 이는 도학의 가치를 내건 정이와 주자를 위시한 송나라 도학과 문인들이 作文害道論을 주장하며 소동파를 배척했던 것과 그 맥을 같이한다. 정이가 활동했던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소동파 사후에도 소동파의 존재감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강하였기에, 송나라 도학자나 조선의 성리학

20) 李珣, 「答成浩原 己卯」, 『栗谷全書』 11권, “若宋之諸賢云云者 只言不必君子小人相攻擊云爾 非謂不相符合矣 但如蜀黨 固非矣 假使程子爲政 則將舉蜀黨而盡斥之乎 抑治其不可服使者乎 愚意蘇東坡則不可用也 其餘亦多君子 胡可盡棄乎”

21) 이 사건은 『송원화동사합편강목』의 宋 哲宗 2年조에 <八月罷崇政殿說書程頤>라는 기사로 수록되어 있다.

자들에게 있어 소동파는 자신들의 사상을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셈이다.

율곡의 소동파에 대한 인식은 尤庵에게도 확인할 수 있다.

송나라의 諸賢 가운데 異端에 빠진 사람이 매우 많은데 주자가 유독 蘇軾과 陸九淵에 대하여 매우 공격한 것은, 蘇의 문장과 의론이 一世를 傾倒하였고 陸의 存心과 爲己의 工力이 진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자가 일찍이 蘇의 持節을 찬양하고 또 그를 어진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陸에 대하여서도 매우 양 그가 절실한 곳에 힘쓴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문인들로 하여금 육의 강론을 듣게 하여 강론을 들은 자가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소와 육이 이와 같은 지위와 기세로 이단의 설을 장황하게 늘어놓아 세상에서 농간을 부리자, 온 세상이 여기에 風靡되어 해가 무궁하였다. 그러므로 주자가 극력 배척하여 당세를 깨우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sup>22)</sup>

윗 글에서 宋時烈은 주자가 소동파를 배척한 근거를 옹호하였다. 주자는 기본적으로 소동파에 대해 고매한 지질을 지니고 있고 어진 사람이라고 칭송할 정도로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소동파의 문장과 의론이 당시 송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라, 폭넓은 사유방식을 보인 그의 사상이 유행하면 도학은 힘을 잃게 될 것이기에 그것을 우려하여 극력 배척하였다는 논지이다.<sup>23)</sup>

그런데 율곡과 더불어 조선 성리학의 양대 宗匠으로 인정받는 退溪의 경우는 이와 반대되는 면을 보여 흥미를 끈다. 퇴계도 소동파가 정이와

22) 宋時烈, 「燕居雜錄」, 『宋子大全』 131권, “宋之諸賢 溺於異端者甚多 而朱子獨於 蘇陸攻之至於苦死者 以蘇之文章議論傾倒一世 陸之存心爲己工力眞實 故朱子嘗贊蘇之持節 又嘗以爲仁人 而於陸每說其切實處用力 至使其門人聽講 其聽講者至於流涕 蘇陸以如此地位氣勢 而張皇異說 作弄於世 於是舉世風靡 爲害無窮 故朱子不得不極力排斥 以曉當世”

23) 송시열의 이러한 생각은 “옛날 眉山의 삼공은, 그 문장은 혁혁했으나, 올바른 학문이 아니었기에, 주부자의 질책을 받았다.[昔眉山三公, 赫赫煌煌, 而非正學, 得罪紫陽]”(宋時烈, 「玄洲李公神道碑銘」, 『宋子大全』, 167권)라는 글에서도 확인된다.

대립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소동파의 시문을 무척 좋아하여, 평소 시를 지을 때 동파의 말을 쓴 것이 많다는 제자의 증언도 있거니와, 자하는 조선에서 동파시를 제대로 배운 이는 퇴계뿐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sup>24)</sup>

결론적으로 화서가 소동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게 된 맥락은 ‘주자 → 율곡 → 우암 → 화서’에게로 연결되는 그의 학통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화서의 영향을 받은 화서학과 문인들의 견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sup>25)</sup>

동파의 글에 이르러서는 주자도 학술과 의론이 옳지 않음을 매우 싫어하였다. 배우는 자가 동파 문장의 고상함을 좋아하여 기뻐하며 읽어 권태로움도 느끼지 않아 날이 가고 달이 가면 그에게 동화됨은 마치 어물전에 들어가 오래되면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과 같다. 동파의 글을 확실히 끊어야 하고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하는 까닭이 이와 같다. 군자가 말하기를, “그 공은 맹자가 양자와 목적을 배척한 공로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말을 아는 것이다. 지금 문장이 난삽함을 근심하면서도 동파의 글을 많이 읽게 하니, 좋아하고 싫어하고 주고 뺏음을 어찌 주자와 다르게 하는가. 또 문장 공부를 필요로 한다면서 가의와 소동파 등 제가의 허다한 글을 읽으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니, 다시 어느 때에 공부에 정력을 쏟겠는가. 『소학사자』와 『근사록』 등 여러 경전과 정자와 주자의 책에 이를 수 있다면 마음에 큰 도를 보존하여 致用의 실질적인 것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 한평생 사는 것이 얼마나 길겠는가. 짧은 순간인데 단지 한때 뛰어난 문인이 되는 것에 그친다면 또한 슬플진저!<sup>26)</sup>

- 24) “余曰 我朝中葉以上詩人 皆慕東坡體 而未敢信其善學矣 紫霞曰 退溪之詩 頗似東坡 而其他吾亦不敢信也” 申錫雨, 『紫霞軟談』(이현일,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 25) 여기부터 2장 전까지는 기존에 발표한 논문(줄고, 「恒窩 柳重岳의 생애와 시세계 - 화서학과 문인들의 문학론을 중심으로」, 『한국인물사연구』 18집, 2012)을 수정 보완하고 다른 자료를 대폭적으로 추가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 26) 金平默, 「答徐汝心」, 『重菴集』 11권, “至如坡文 則朱夫子深惡學術議論之不正 憂學者悅其文章之高 欣然而不之倦 日往月來 與之俱化 如入鮑魚之肆 久而不聞其臭 其絕之深而禁之嚴如此 君子謂其功不在孟氏距楊墨之下 此知言也 今患文章

위의 글은 화서의嫡傳弟子로 평가받는 金平默의 언급이다.<sup>27)</sup> 그는 화서학과 문인들 가운데 문학과 관련된 기록을 가장 많이 남겼거니와 문학에 대해 깊은 조예를 지니고 있었다.

위의 글에서 화서학과의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과 소동파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화서학과 문인들은 문학적 재능이 뛰어나 최고의 문장가로 추앙받는 삶을 슬프다고 표현할 정도로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으며, 문학에 빠지면 학문 연마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굳게 지니고 있었다. 또한 주자가 소동파의 학문을 배척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여 소동파의 글에 매료된 당시 지식인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하며, 소동파의 글을 배척함을 마치 맹자가 양목의 학설을 물리친 공로에 비견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

동파의 문장은 천하에서 가장 오묘하여  
 일월과 빛을 다투고 풍아도 우습다네.  
 누가 종파를 나눠 고의로 비방하고 헐뜯는가?  
 하루살이가 나무를 흔드는 격이니 주제를 모르는 거라네.

이 시는 누가 지은 작품인지 알지 못하지만 고무하여 부끄러워할만하다. 다만 글방에 베껴서 전해져 온 것으로 교육을 해침이 매우 크다. 소동파 문장의 웅장하고 깊고 민첩하고 오묘함은 고급에 대적할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그의 말 가운데 격언으로 취할만한 것은 열 개중에 한두 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원망하고 조롱하는 말이고 편파적이고 음란하며 사악한 말이다. 왜곡하거나 숨겨서는 안되기에 귀산과 주자도 또 여러 번 말씀하셨다. 지금 일월과 풍아로 비유한 것도 진실로 이미 망령된 것인데,

之艱澁 而使之多讀坡文 是其好惡予奪 何其與朱子異耶 且也要治文章 而讀賈·蘇諸家許多之文 勞弊精神 糜費歲月 則復有幾時精力工夫 可及於小學四子·近思諸經程朱之書 充其所謂存心大道以致用之實也耶 人生一世 其久幾何 少間只得爲一時文人之雄而已 不亦悲夫”

27) 김평묵은 당시 낙론계 학자인 網堂 徐應淳과 文에 대해 여러 차례 서신을 주고받으며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김평묵의 문학과 문학세계에 대해서는 정경훈, 앞의 논문 참조.

하루살이가 나무를 흔든다고 말함에 이르러서는 그 잘못됨이 더욱 심하다. 무릇 川洛의 나뉘은 儒와 俗의 분쟁이다. 유숙의 분쟁은 사악함과 올바름이 결정한 것인데, 송나라 역사서에서 둘 다 옳고 둘 다 그르다고 한 것을 식자들은 오히려 병통으로 여긴다. 지금 洛黨의 여러 선생들을 하루살이라 일컬으니, 이것은 속됨으로 나가고 儒에서 물러나는 것이며 사악함을 따르고 올바름을 추하게 여기는 것이다.<sup>28)</sup>

위의 인용문 역시 김평목이 쓴 글로, 소동파 문장의 빼어남을 찬양하고 특정한 정파에 속해있었다는 이유로 소동파를 비판하는 부류를 조롱하는 내용의 시를 다시 비판한 글이다. 작자도 알 수 없는 이 시가 글방에 전해지고 있다는 기록을 통해 당대 지식인뿐만 아니라 배우는 과정에 있는 초심자들에게도 소동파의 영향이 만연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곧 주자학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의 방증이기도 하다.

위의 글에서 김평목은 소동파의 문장은 격식과 기교에 있어서는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오묘하여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교훈을 담고 있는 글은 거의 없고 모두 편파적이고 말장난하는 수준이라고 폄훼하였다. 소동파가 儒佛道를 아우르는 사상을 기저로 雅俗에 구애받지 않고 글을 썼기에 그의 글에 담긴 議論이 정통 유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됨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이를 儒와 俗의 구별로 설정하여 소동파의 문장은 俗되고 邪하다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스승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송나라 때 川黨과 洛黨이 서로 대립하여 생겨난 분쟁을 거론하며 소동파의 정치적

28) 金平默, 「書讀東坡詩長句後」, 『重菴集』 44권, “東坡文章妙天下 日月爭光薄風雅誰分宗派故謗傷 蚍蜉撼樹不自量云云 此詩不知何人所作 孤陋可愧 第其謗傳塾中害教甚大 蘇氏文章雄深敏妙 古今罕匹 孰不知之 然其格言可取 不過十之一二 而餘皆怨懟輕儂之詞 誠淫邪遁之說 不可曲爲之諱 則龜山朱子 又言之屢矣 今以日月風雅擬之 固已妄矣 至言蚍蜉之撼樹 則其悖尤甚 夫川洛之分 儒俗之爭也 儒俗之爭 邪正之判也 宋史之兩可兩非 識者猶病之 今以洛黨諸公爲蚍蜉 則是進俗而退儒 黨邪而醜正也”

행적에 대한 비판도 마다하지 않았다.<sup>29)</sup>

김평묵의 제자이기도 하였던 柳重岳은 김평묵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래와 같이 의심나는 점을 질정하기도 하였다.

주자가 「예국기에게 주는 편지」에서 소동파의 학문을 논하면서 말하기를, “마땅히 발본색원하여 한 명의 학자라도 듣지 못하게 해야 미친 듯한 물결을 막아 동쪽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를 응징하려고 하다가 또 갑자기 소동파의 장점을 취하려는 뜻이 있게 될 터이니, 배우는 자는 무엇을 택해야 할 지를 아직 알지 못해 취하고 버리는 사이에 또 그에게 물들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할까 두렵다.[주자의 글은 여기까지이다.]”라고 했습니다. 삼가 살펴보니 주자가 일찍이 회남자와 양자, 범노공의 말을 취하여 『소학』으로 엮었습니다. 이것은 사람 때문에 그의 말을 없애지 않는다는 성인의 뜻과 진실로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소동파의 말에 있어서만은 금하고 취하지 못하게 함이 이와 같이 엄격하게 한 것은 어째서 입니까? 또 주자가 『논어』와 『맹자』 등의 註解에 소동파의 말을 취한 것이 한두 번에서 그치지 않는데, 주자 스스로는 취하면서 남에게는 금지시키는 것은 또 어째서 입니까?<sup>30)</sup>

주자는 소동파의 글을 발본색원하여 아무도 그 글을 보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조금이라도 소동파의 글을 보게 되면 그에게 빠져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주자 자신은 소동파의 글을 읽고 필요한 사항

29) 김평묵의 이런 생각은 「三江問答」(『重菴集』 7권.)의 “동파가 어찌 기개있고 절개있는 선비가 아니겠는가. 비록 주자도 일찍이 그를 매우 칭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法義를 잡고 있는 자라면 그를 죽임에 조금이라도 남의 힘을 빌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천 선생으로 하여금 조정에서 뜻을 펼칠 수 없게 하여 천하가 매우 잘 다스려지는 은택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이 큰 죄가 되기 때문이다.(東坡豈非氣節之士 雖朱子未嘗不亟稱之 然而秉法義者 誅之不少假借 以使伊川 不能容身於朝 而天下不得蒙至治之澤 爲大罪也)”라는 언급에서도 확인이 된다.

30) 柳重岳, 「上重庵金先生 丁丑十二月中旬」, 『恒窩集』 4권, “朱子與芮國器書 論蘇氏之學曰 正當拔本塞源 以一學者之聽 庶可以障狂瀾而東之 若方且懲之 而又遽有取其所長之意 竊恐學者未知所擇 一取一捨之間 又將與之俱化 而無以自還(朱子說止此) 謹按朱子嘗取淮南子楊子范魯公之言 而編之小學 則此是聖人不以人廢言之意 誠無間然矣 今於蘇氏之言 禁不得取舍如是之嚴 何也 且於語孟等書註解 有取於蘇氏之言者 非止一二 自我則取舍 而在人則禁之 又何也”

을 발췌하여 자신의 논리로 삼기도 하였던 점에 대해 유증악이 의문을 가진 것이다. 이에 대해 김평묵은 주자는 지극히 밝고 지극히 공정한 성인이라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에 금지시킨 것이라는 다소 구차한 변명을 하기도 하였다.<sup>31)</sup>

송나라의 문사인 구양수와 소동파 같은 사람에 대해 집사께서는 반드시 좋게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 문장을 짓는 본심을 따져 올라가면 어찌 반드시 도와 함께 한다고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그들의 문장을 읽으면 이따금 훌륭한 의론이 있으니, 진실로 없앨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귀결을 요약하면 결국에는 도와 합치되는 것은 적고 도와 합치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도와 합치됨이 적고 도와 합치되지 않음이 많으면 비록 문과 도를 함께하고자 하여도 끝내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 까닭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성실하게 하여 도를 추구하여 몸을 수양하려 하지 않고, 한갓 말로 논의하는 지엽적인 일을 답습하여 세상에 존중받기를 추구함에 있습니다. 도라는 것이 존귀하여 견줄만한 것이 없고 주인이 되고 객은 되지 않으며, 사물에 명령을 내릴지언정 사물에 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sup>32)</sup>

위의 인용문은 화서의 또 다른 수제자인 柳重教가 쓴 글이다. 소동파나 구양수의 글도 기본적으로는 道를 갖추고 있기에 무조건 배격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면서도 문장과 도는 병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도를 추구하기 위한 수양은 등한시하고 지엽적인 문장에만 매달리게

- 
- 31) “答曰 朱子聖人也 至公而無私 至明而無蔽 故取其所長一善不遺 而能無毫髮之差矣 如芮國器以下 怎生及此 而不爲之禁止乎” 위의 서신에 대한 답변으로 함께 수록되어 있음.
- 32) 柳重教, 「答徐汝心 己巳冬」, 『省齋集』 10권, “宋之文士如歐陽公蘇軾輩人 執事必不屑於此 而此二人者 原其爲文之本心 則亦豈不曰必與道俱乎 今讀其文 往往有好議論 誠有不可沒者 然要其歸則畢竟合道者少 而不合道者多 合道者小 而不合道者大 雖欲與俱 而卒不可俱 此其故不在乎佗 在乎不肯誠心求道 以養乎身 而徒欲襲取於言議之末 以自重於世 殊不知道之爲物尊而無對 爲主而不爲客 命物而不命於物”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은 문장 학습 보다는 도학에 대한 연마에 더 치중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의리의 관점에서 7-8차에 걸쳐 읽고, 문장의 관점에서 2-3차례 읽어야 한다. 의리를 깊이 공부한 자라도 도리어 문장의 체제와 기세에 있어서는 훑어보는 것에 불과하고, 오로지 문장의 관점으로만 읽는 자는 도리어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의리에 있어서는 살펴보아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모두 옳지 못하니, 마땅히 의리와 문장을 병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리와 문장으로 하여금 主賓과 本末의 구분에 헛갈리게 해서 안된다. 예컨대 정호와 정이 두 선생은 오로지 의리만 주로 하여 읽었고, 구양수, 증공, 소동파는 다만 문장의 관점으로만 읽었다. 그러나 의리만 주로 하여 읽으면 실제로 얻는 바가 있지만, 단지 문장의 관점으로만 읽으면 끝내 무슨 이로움이 있겠는가. 내가 보건대 주자야말로 의리와 문장을 병행하여 책을 읽은 분이다.<sup>33)</sup>

위의 글은 구한말 의병활동의 리더로 활약한 柳麟錫이 독서의 방법에 대해 쓴 글이다. 유인석은 책을 읽을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義理와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기법에 해당되는 文章 두 가지 방향을 모두 중시하여 공부해야 함을 먼저 설파하였다. 문장의 가치를 일정정도 인정한 면에서 글은 도를 실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는 載道論的 문학관에서 조금 진전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리가 主本이고, 문장은 客末이라는 기존 도학자들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여 문장의 공부에만 힘을 쏟은 소동파 등 고문과 문사들 보다 의리의 공부에만 치중한 정호, 정이의 자세가 더 낫다고 평가하였다. 기존 도학자들이 강조한 道의 개념이 관념적인 면이 강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를 실천적인 면이 가미된 義理로 치환하여 공부에서 그치는 것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구현하고자 한 면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3) 柳麟錫, 「散言」, 『穀菴集』 28권, “○讀書 須是義理讀七八次 文章讀二三次 深究義理者 却於文章體勢 照不過 滾讀文章者 却於義理蘊奧 察不及 是皆未善 宜得並行 但令義理文章 不失主賓本末之分 如兩程專主義理讀 如歐曾蘇只有文章讀 然專主義理讀 實有得 只有文章讀 終何益 看來朱子 正是並行讀”

金橘如無酸      금빛 귤에 신 맛이 없다면  
 安能爽口多      어찌 입을 상쾌하게 함이 이다지도 많겠는가.  
 却因遠朋餽      멀리 있는 벗들이 귤을 보내준 것 때문에  
 恨說破東坡<sup>34)</sup>      한스럽게도 동파를 말하고 있다니.

위의 시는 병중에 있는 柳麟錫을 위로하기 위해 벗들이 귤을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한 시이다. 시 전체가 소동파가 지은 「食柑」의 1연 “한 쌍의 비단 보자기로 진귀한 물건 나누어 주지 않았는데, 초야에서 먼저 맛보니 좃겨난 신하 부끄럽네.[一雙羅帖未分珍 林下先嘗怪逐臣]”와 3연 “맑은 샘이 졸졸졸 입에 먼저 흐르고, 향기로운 안개 흠뻑 뿜으려 하는구나.[清泉蔌蔌先流齒 香霧霏霏欲喫人]”라고 하는 구절을 배경으로 한다. 소동파는 궁궐에서 임금이 하사하기 전에 귀양 온 자신이 먼저 먹게 되어 부끄럽다는 심정과 귤껍질을 벗길 때 본능적으로 생기는 현상을 묘사하였다. 이에 대해 유인석은 귤에 신맛이 있기에 침이 고이고 과즙이 터지는 현상이 생긴다고 하면서 자신도 귤을 먹을 처지가 아닌데 귤을 먹게 되어, 소동파의 시구를 언급하게 된 것이 한스럽다고 하였다. 이는 소동파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 유인석이 거부감을 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화서학과 문인들은 소동파에 대한 인식과 그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스승인 화서의 가르침을 충실히 계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소동파의 문장에 대해 일정정도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소동파에 대한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인식이 그들 사상의 저변에 강력하게 깔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2. 역사서 편찬에 나타난 소동파에 대한 평가

화서학과 문인들의 소동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그들이 편찬한 역

34) 柳麟錫, 「龍岡金玉汝龍川 文翼叟鳳岐 張季乙殷植 先後持橘來贈 啗之極爽病口作小絕以謝」, 『穀菴集』 1권.

사서인 『宋元華東史合編綱目』(이하 ‘『합편강목』’으로 약칭함)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 책은 주자의 『資治通鑑綱目』을 이어 송나라와 원나라 및 고려의 역사적인 사건을 시대순에 따라 편찬한 역사서로, 그들의 사상이나 역사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중에서 송나라와 원나라의 역사는 명나라 학자 商輅가 편찬한 『續資治通鑑綱目』(이하 ‘『속강목』’으로 약칭함)을 저본으로 하여 삭제하거나 첨가하기도 하고 여러 학자들의 언급을 추가로 보충하여 제작되었다.<sup>35)</sup>

본 절에서는 이 역사서에서 소동파에 대해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합편강목』의 송나라 哲宗 6년 6월조에 <한림학사 승지 소식이 죄를 지어 파직되었다(翰林學士承旨蘇軾有罪罷)>라는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저본이 되는 『속강목』에는 <한림학사 승지 소식이 파직되었다(翰林學士承旨蘇軾罷)>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본에 없던 ‘有罪’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바꾸어 서술하게 된 배경은 아래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속강목』에는 ‘한림학사 승지 소식이 파직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홍재구가 “소식이 이친선생을 참소하고 쫓아내 천하의 재앙을 선동한 죄는 죽여도 시원치 않습니다. 지금 대방이 파직을 아뢰는 것은 비록 중간에서 조절하고 타협하여 나온 말이기엔 하늘이 벌을 주려는 의도와 다릅니다. 붓을 잡은 자가 어찌 무죄의 예를 잘못 응용하여 쓸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내가(유중교) 그 말을 듣고 섬짓 놀라 ‘한림학사 승지 소식이 죄를 지어 파직되었다.’라고 고쳐 썼다.<sup>36)</sup>

35) 이 책의 편찬 과정과 체제 및 서술방향에 대해서는 박인호, 『『송원화동사합편강목』에 나타난 화서학파의 역사인식』, 『朝鮮時代史學報』 27집, 2003 참조.

36) 『송원화동사합편강목』附錄 發明 上, 「翰林學士承旨蘇軾有罪罷」에 대한 주석, “續綱目書翰林學士承旨蘇軾罷 洪在龜曰 軾之讒逐伊川 而煽動天下之禍罪 不容誅矣 今大防之奏罷 雖出於調停 非天討之意 秉筆者 豈宜仍誤以無罪之例書之 愚竦然聽之 改書曰 翰林學士承旨蘇軾有罪罷”

또한 『합편강목』 송나라 철종 2년조에 <우사간 가이를 파직하였다(罷右司諫賈易)>라는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기사의 주석도 『속강목』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哲宗 元祐 2년(1086) 우사간 賈易을 파직하였다는 대목[哲宗元祐二年 罷右司諫賈易]

주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정이와 蘇軾은 서로 사이가 나빴다. 소식이 평소 정이의 간악함을 미워하여 말투나 얼굴빛을 거짓으로도 좋게 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두 당파들이 서로 공격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었다.”

○ 생각하건대, 이 대목의 주석의 말 가운데 ‘交惡’ 두 글자와 “그 두 당파가 공격하여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었다.”라고 운운한 것은 자못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수정을 하여 “당시 소식은 정이를 미워하여 임금에게 올린 글에서도 ‘신은 평소 정이의 간악함을 미워하여 말투나 얼굴빛을 거짓으로도 좋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두 당파가 서로 공격하고 배척하였다.”정도로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주석의 글이지만 이 부분은 봉당과 관련된 핵심이 처음으로 판별이 나는 곳이므로 문장을 구성함에는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sup>37)</sup>

『합편강목』을 편찬할 때 전반부를 맡았던 柳重教가 관련 기록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이를 다른 문인들에게 보내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동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밝힌 것이다. 앞의 인용문은 소동파가 파직당한 기사를 편찬하면서 정이를 시기하고 배척한 죄가 있으므로 ‘죄를 지어[有罪]’라는 구절을 추가하였다는 것이고, 뒤의 인용문은 정이와 소식의 갈등에서 소식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는 기록이다.

37) 柳重教, 「宋元華東史合編綱目書法」, 『省齋集』 31권, “哲宗元祐二年 罷右司諫賈易注 時程頤蘇軾交惡 軾至言素嫉程頤之奸 未嘗假以辭色 其黨互相攻訐云云 ○按此注辭交惡二字及攻訐之云 殊不允當 今擬稍修改云時蘇軾憎嫉程頤 至於奏狀言臣素嫉程頤之奸 未嘗假以辭色 其黨互相攻斥云云 未知如何 蓋雖注文此繫朋黨頭腦始判處 其立文不可不謹也”

소동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소동파의 죽음을 기록한 기사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합편강목』은 『속강목』의 용례를 따라 어떤 인물의 죽음을 기록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는 ‘卒’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죄악이 크고 악행이 극도에 달하여 하늘과 인간의 공분을 산 경우는 ‘死’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蘇軾은 당당한 송 왕조의 한림학사로서 그 기개와 명망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卒’이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가 죄가 있어서 어진 이를 표창하는 예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姚樞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식도 얻지 못한 특별한 사례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sup>38)</sup>

위의 기록을 통해 처음 『합편강목』을 편찬하면서 소동파의 죽음에 대해 ‘卒’이라고 쓰지 않고 ‘死’라고 기록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소동파의 죄악과 악행이 너무나 커 마치 반란을 일으킨 인물이나 국권을 찬탈한 인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소동파의 죽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화서학과 문인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합편강목』을 편찬할 때 소동파의 죽음을 아예 기사로 기록하지 않았다. 중요한 점은 문인들 사이에 이견이 많아 논란 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그의 기사를 빼버린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체로 ‘卒’이라고 쓸 경우는 정통이 있는 재상은<sup>39)</sup> 모두 ‘卒’로 기록하였다. 賢者이면 관작과 봉작을 상세히 나열하고 성명도 모두 적었으며 시호도 기록하였다. 만약 보통 사람과 현자중에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들의 등급에 따라서 관작을 조절하되 성명을 모두 적었으며 시호는 기록하지

38) 柳重教, 「上重庵先生史例問目」, 『省齋集』 8권, “蘇軾以堂堂大朝之翰林學士 其氣節名望爲何如 而猶不書卒者 以其有罪而不可用表賢之例也 今於姚樞之人地 而用蘇軾所不得之特例 不已過乎”

39) 여기서 宰相이라고 한 것은 뒤에도 나오지만 고위 관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직이 있었던 인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않았다. 죄가 그 선행을 덮는다면 비록 명신이라고 불렀어도 단지 ‘성명졸’로 기록하였다.<sup>40)</sup>

『합편강목』을 편찬하면서 인물의 죽음을 기록하는 원칙을 밝힌 위의 글에서 생전에 특별히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 경우 모두 관직과 시호까지 기록하고, 문제가 있는 인물일 경우 그 문제의 경중에 따라 조절을 하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인물일 경우 ‘성명졸’로 간략하게 기록을 한다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다. 대표적으로 정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故直秘閣判西京國子監程頤卒’(宋 徽宗 大觀 元年)이라고 기록하였고, 신법을 주장하여 정이, 소동과 등 구법당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송나라를 혼란에 빠트렸던 왕안석의 죽음에 대해서는 ‘王安石卒’(宋 哲宗 元祐 元年)이라고 기록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유명한 인물이지만 기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인용문에서 그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재상이 아니라면 오직 현자만 특별히 기록하였다.(非宰相則惟賢者特書)>의 주석

현자일 경우에 羅從彦과 李侗 같은 분은 비록 종신토록 은거하면서 검약하게 생활을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역시 기록하였다. 현자로 처리할 수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비록 蘇軾이나 陸九淵처럼 저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기록하지 않았다.<sup>41)</sup>

관직이 없는 인물일 경우 현자만 특별히 기록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그 경우로 두 인물을 제시하였다. 羅從彦은 程頤와 楊時에게 수학하여 그 학문을 李侗에게 전하였고, 李侗은 다시 주희에게 전하여 정이로부

40) 柳重教, 『宋元華東史合編綱目書法』, 『省齋集』 31권, “凡書卒 正統宰相悉書之 其賢者備列官爵封具姓名 而注其諡 若常人及賢而不能無罪者 則隨其等品節畧官爵 具姓名而不注諡 若罪足以掩其善 則雖號名臣 但書姓名卒”

41) 柳重教, 『宋元華東史合編綱目書法』, 『省齋集』 31권, “於賢者 雖羅從彦李侗終身隱約者 亦書之 其不可以賢處之者 雖蘇軾陸九淵之著顯者 亦不書”

터 주희에 이르는 학맥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기에 관직이 없었지만 그들의 죽음을 모두 기사로 기록한 반면에, 소식이나 육구연처럼 저명한 인사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판단으로는 현자라고 할 수 없기에 기사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최종적으로 소동파의 죽음은 별도의 기사로 독립하지 못하고 ‘復范純仁等官 徙蘇軾等于內郡’(宋 哲宗 3년 4월)이라는 기사의 주석으로 처리되었다. 소동파의 문장이 당대에 매우 유행했었고, 충정을 다하여 임금을 섬겼다고 평가한 『속강목』의 기록과 함께 주자가 소동파를 평가한 논평을 이어서 수록하였는데, 『속강목』에서 소동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주자가 천리를 해치고 인심을 어지럽힌 죄악은 왕안석보다 작지 않다고 논평한 것과 서로 어긋나는 바가 있다고 하여 『속강목』의 내용을 일부 삭제하려고까지 하였다.<sup>42)</sup>

『합편강목』에서 확인된 소동파에 대한 記述은 화서학파의 소동파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그들은 북송 정치사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던 소동파에 대해 폄훼와 비판의 일관된 시각을 견지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인식으로 인해 저본으로 삼았던 『속강목』의 서술을 소동파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도 하였고, 소동파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예 기사화하지 않고 주석으로 처리해 버리기까지 하였다. 훗날 주자에게도 비판을 받았던 왕안석보다 더 악한 인물로 그들은 소동파를 처리한 것이다.

그들이 소동파에 대해 이와 같이 비판적인 인식을 하게 된 것은 도학파의 학통에서 중요한 인물로 추앙하는 程頤와 賈誼를 빗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이는 사실 명분에 불과하다. 그들은 소동파가 지닌 폭넓은 사상과 뛰어난 문장력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道學이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는 실제로 남송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바, 비단 주희를 위시한 송나라 도학

42) 柳重教의 「上重庵先生華東合編綱目書例稟目」(『省齋集』 8권)에 이와 관련된 사항이 나온다.

자들만의 고민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조선 중기 성리학자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며, 19세기에 화서학과 문인들에게도 부여된 고민이자 해결해야 될 과제였던 것이다.<sup>43)</sup>

#### IV. 결론

지금까지 19세기 조선의 지식인 사이에 불었던 소동파에 대한 열풍과 화서학과 문인들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19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있어 소동파는 뛰어난 문장가나 시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들은 소동파의 모든 것을 배우고 따르고자 하였던 것이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활약한 경화세족들에게 있어 소동파는 그들이 본받아야 할 이상적인 삶의 典範이 된 것이다. 이전의 지식인들이 朱子를 삶의 전범으로 삼았던 것에서 그 대상이 소동파로 바뀐 것이다.

그런데 화서학과 문인들은 기존 성리학자들이 견지했던 의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다. 栗谷 - 尤庵 - 華西로 이어지는 그들의 學統이 소동파에 대한 인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소동파가 程頤와 정치적 갈등을 빚었던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그들에게 있어 소동파는 天理를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혼란에 빠트린 문제아일 뿐이었다. 소동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正統을 바로잡아 華夷의 구별을 엄격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편찬된 『송원화동사합편강목』이라는 역사서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기존 역사서에서 서술된 소동파에 대한 기록을 수용하되 소동파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쪽으로 수정하기도 하였고, 소동파가 매우 큰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한 소동파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사로 독립하지 않고 주석으로 처리

43) 화서학과 문인들이 기치로 내건 ‘衛正斥邪’에서 소동파는 斥邪의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해 버린 것이다.

화서학과 문인들이 이와 같이 소동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배타적인 자세를 견지한 이유는 주자 등 송나라 도학자들이나 조선 중기 성리학자들의 생각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소동파가 어느 특정한 사상에 구애받지 않아 儒佛道를 아우르는 폭넓은 사상을 지니고 있는 데다가, 타고난 문학적 능력을 토대로 자유자재로 문장을 구사하였던 바, 당대는 물론이고 사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동파의 문장에 매료되었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성리학자들이 주장하는 道學은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그들은 그런 상황이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소동파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맞선 것이다.

<參考 文獻>

- 金祖淳, 『楓臯集』(한국문집총간 289집)  
 金平默, 『重菴集』(한국문집총간 319~320집)  
 宋時烈, 『宋子大全』(한국문집총간 108~116집)  
 柳麟錫, 『毅菴集』(한국문집총간 337~339집)  
 柳重教, 『省齋集』(한국문집총간 323~324집)  
 柳重岳, 『恒窩集』, 경원문화사, 1977.  
 柳 僖, 『文通』(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李 珥, 『栗谷全書』(한국문집총간 44~45집)  
 李恒老, 『華西集』(한국문집총간 304~305집)  
 黃 玿, 『梅泉集』(한국문집총간 348집)  
 『宋元華東史合編綱目』, 奈堤文化研究會, 1988.
- 김근태, 「西坡 柳僖의 詩文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_\_\_\_\_, 「恒窩 柳重岳의 생애와 시세계 -화서학과 문인들의 문학론을 중심으로-」, 『한국인물사연구』 18집, 한국인물사연구회, 2012.  
 남영진, 「錦齡 朴永輔와 蘇東坡」, 『한국한문학연구』 45집, 한국한문학회, 2010.  
 박인호, 「『송원화동사합편강목』에 나타난 화서학과의 역사인식」, 『朝鮮時代史學報』 27집, 조선시대사학회, 2003.  
 박준호, 「毅菴 柳麟錫의 漢詩에 대한 研究」, 『大東漢文學』 21집, 대동한문학회, 2004.  
 성인근, 「『寶蘇堂印存』의 내용과 이본의 제작 시기」, 『장서각』 14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송기섭, 「毅菴 柳麟錫의 詩文學 연구」, 선문대 박사학위논문, 2015.  
 오영섭, 『화서학과의 사상과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1999.  
 이동재, 「省齋 柳重教의 詩文學 一考」, 『漢字漢文教育』 20집, 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 이승재, 「威堂 申櫨 한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0.
- 이현일, 「조선후기 京華世族의 東坡 수용 양상」, 『중국문학』 62집, 한국중국어 문학회, 2010.
- 정경훈, 「重庵 金平默의 文學觀 形成과 文學認識」, 『東方漢文學』 34집, 동방한문학회, 2008.
- 정 민, 「19세기 동아시아의 慕蘇 열풍」, 『한국한문학연구』 49집, 한국한문학회, 2012.
- 허권수, 「소동과 시문의 한국적 수용」, 『중국어문학』 14집, 영남중국어문학회, 1988.
- 홍우흠, 「華西 李恒老의 山水詩 試探」, 『語文研究』 32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 황하준, 「華西 李恒老 漢詩 研究」, 『한문교육연구』 32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09.

## Abstract

*Hwaseo School's perception and criticism of Su Dongpo*  
/ Kim Geun-ta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craze for Su Dongpo among the literati of Joseon in the 19th century and the perception of him by Hwaseo School. For the literati of Joseon in the 19th century, Su Dongpo was more than an excellent writer or poet. The literati tried to learn and follow everything about Su Dongpo beyond his poetry and prose. Especially, Gyenghwasejok(京華世族) who played an active part in Seoul regarded Su Dongpo as a paragon of ideal life. It can be said that their role model of life was changed from Zhuzi to Su Dongpo.

However, the writers of Hwaseo School still adhered to the consciousness of the existing Neo-confucian scholars. Their scholastic mantle linked from Yulgok, through Wooam, to Hwaseo reflected the perception of Su Dongpo. The Hwaseo School thought that Su Dongpo was nothing but a troublemaker who disturbed the order of nature and threw the people into chaos, based on the historical event in which Su Dongpo had a political conflict with Cheng Yi. The negative perception of Su Dongpo was obviously displayed in a history book, 『Songwonhwadongsahabpyeongangmok(宋元華東史合編綱目)』, compiled to rectify orthodoxy and to make the sharp Sino-barbarian Dichotomy(華夷). Hwaseo School accepted the record of Su Dongpo described in the existing history, but modified it to emphasize negative side of him. Moreover, they just commented on Su Dongpo's death instead of writing a separate article about it, because he had committed a very great evil. The reason why

---

\* Lecturer of Kangwon Univ. / neoktkim@naver.com

Hwaseo School maintained the negative perception and exclusive attitude toward Su Dongpo is in line with the ideas of moral philosophy scholars of the Song Dynasty such as Zhuzi, and the Neo-confucian scholars in the mid-Joseon period. In other words, Su Dongpo was not bound by any particular idea, so he had a wide range of thoughts including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And he freely made sentences based on his innate literary ability. For these reasons, there were many people who were fascinated by Su Dongpo's sentences during his lifetime and even after he died.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was clear that the moral philosophy(道學) claimed by the Neo-confucian scholars would not get much response. Therefore they actively stood up to block the Su Dongpo's influence, fearing that such a situation would occur.

【Key words】 Su Dongpo(蘇東坡), Cheng Yi(程頤), Zhuzi(朱子),  
Hwaseo School(華西學派), Sino-barbarian  
Dichotomy(華夷),  
『Songwonhwadongsahabpyeongangmok(宋元華東史合編綱目)』

투고일 : 11월 23일, 심사완료일 : 12월 9일, 게재확정일 : 12월 12일